

# 곡성심청축제 '성황' ...9만 인파 몰려



추석 연휴기간인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효와 함께 열어나가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7회 곡성심청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축제 현장인 곡성심청강기차마을에는 추석 연휴부터 폐막일인 9일까지 8만8000여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

해 2억1000만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다. 또 농산물 판매점, 향토음식점, 식당가도 연일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줬다. 10일 곡성군에 따르면 올해 축제

**'효와 함께 열어나가는 행복한 세상' 주제  
입장수입 2억1000만원...지역경제 도움**

는 '곡성 심청, 그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슬로건 아래 황금 추석명절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즐기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축제 첫날에는 창작뮤지컬 '청이는 왜 인당수에 몸을 던졌나' 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고 둘째 날은 가수 남진 공연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8일에는 가수 조항조와 진성의 '우정 콘서트'가 펼쳐졌고 마지막 날에는 '구곡순담(구곡·곡성·순창·담양) 100세 공동문화행사'가 열려 4개 군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채로운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볼거리도 다채로웠다. 전통 혼례식은 매일 2차례 진행됐고 혼례식 전에 '심청 시집가는 행렬'이 축제

장에 선보여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옛 향수가 가득한 인생극장 흑백사진관, '심청카페', '검정고무신 만화방', '달려라 심청'이 심청 마당극도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붙들었다. 또 '공암미 삼백색 모으기' 행사에서는 1500만 원의 성금이 모아졌고, 모금된 돈은 어르신들 안과 질환 치료에 소중하게 쓰여질 예정이다. 모금운동은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유근기 군수는 "곡성심청축제의 새로운 변신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준비해 관광객들로부터 호평 받았다"며 "내년 축제는 더욱 알차게 준비해 심청을 통해 효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 목포시, 해상케이블카 개통 준비 만전

테스크포스팀 운영해 설치사업·교통·도로 등 총체적 점검

목포시가 체류형관광도시로 이끌 해상케이블카의 성공을 위해 개통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달산과 고하도를 오가는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지난달 15일 기공식을 개최하고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개통 전부터 예상되는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기획관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은 총괄·예산, 사업, 관광, 도시경관·환경, 교통, 도로, 공원녹지, 시민운동·안전, 음식·위생, 문화예술 등 10개 분야 추진과제를 설정해 개통 전부터 후까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비한다. T/F팀은 실제계획인가, 공원점

용허가 등 설치사업과 직접 연관된 사항부터 숙박시설 확충방안, 연계 관광상품 개발, 고하도 힐링랜드 및 전망대 설치사업, 쓰레기 처리 대책, 교통신호체계, 도로구조 개선, 유달산 탐방로, 시설물 안전점검, 음식점 친절·위생 등 관련된 모든 분야를 점검하고 추진한다. T/F팀은 월 2회(필요시 수시) 분야별 팀장·팀원 회의를 개최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모색한다. 또 월 1회 총괄 회의(필요시 수시)를 개최해 각 분야별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토론후 대책을 마련한다. 박홍률 시장은 "꿈꾸는 삶과 철저히 준비해 목포시민의 간절한 열망이 담긴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담양 관광지 인산인해...추석연휴 35만 인파

유료 관광지 6개소 입장료 수입만 3억여원



지난달 30일부터 열흘 간 이어진 추석 연휴 동안 '죽향(竹塲)' 담양의 주요 관광지를 찾은 방문객이 35만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담양군은 10일 "추석 연휴 유료 관광지 6개소를 찾은 관광객이 18만 2000여 명으로 입장료 수입만 3억여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죽녹원의 경우 지난 5일 2만2282명, 6일 1만6998명, 7일 2만 217명 등 지난달 같은 기간에 비해 3배에 달하는 방문객들이 다녀가 힐링 명소로서의 입지를 넓혀줬다. 죽녹원은 지난 9월말 기준, 올해 누적입장객이 105만명으로 최근 4년 연속 100만명이 넘게 방문했고, 연간 평균 150만명이 찾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서 자리매

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메타세쿼이아랜드에 4만여명, 소쇄원에 1만6000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생태도시 담양의 맑은 공기와 관방제일 숲길, 작은 유럽 메타프로방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숲터널, 추월산 용마루길 등을 거닐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찾은 방문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담양 떡갈비, 담양식 돼지갈비, 국수거리, 이색 커피전문점 등 다양한 먹거리도 일조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전기투어버스 운영으로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랜드, 대나무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를 돌며 담양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 것도 인기몰이에 한 몫 했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 강진 5대축제, 가을 감성 흠뻑 적시다

작천 황금들메뚜기축제·마량미향찰전어축제 성대히 개최

강진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강진 가을 5대 축제 중 2개 축제가 성대히 개최돼 강진 가을축제 성공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이번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작천면 황금들 일원에서 개최됐던 제3회 강진 작천 황금들메뚜기축제는 이틀간 6천여명의 관광객이 몰렸다. 지난해 대비 매출액이 총 36%가 증가했다. 이어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마량면 마량미향 증방과제에서 개최됐던 제9회 마량미향찰전어축제에 5만여명의 관광객이 방문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에게 추억거리를 제공했다. 앞으로 강진 가을 5대 축제 중 남은 3개 축제도 벌써부터 관광객

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강진읍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열리는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같은 달 21일 오후 7시 강진을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강진 K-POP콘서트, 같은 달 27일부터 11월12일까지 17일간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열리는 제2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다. 강진원 군수는 "2017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강진군 전역이 가을 축제 분위기로 들쭉날쭉하고 있다. 강진 가을 5대 축제 중 2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앞으로 개최될 3개 축제도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최제영 기자

**"중소기업, 기술이 경쟁력이다"**  
**"해남서 기술 인증 획득 지원 받으세요"**

해남군은 우수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인증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장 등록 업체 중 ISO(국제규격), 이노비즈기

술혁신), 메인비즈(경영혁신), 싱글PPM 품질혁신(불량률제로), KOSHA18001(안전보건), 벤처기업 등 6개 부문에 대해 2017년 기술인증을 취득한 업체이다.

해당 기업에는 기술인증 수수료 및 평가료 기업부담금의 70%까지 군에서 지원하게 된다. 해남군은 기술력과 경쟁력이 뛰어난 우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지원사업을 실시, 현재까지 23개 업체가 기술인증수료를 지원받았다. 접수기간은 11월 3일까지로 군청 지역개발과 투자유치팀(061-530-5661)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기술지원 사업을 확대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